

朴대통령 “문화융성은 창조경제의 토대”

문화융성위원회 첫 회의 주제... 위원들에 위촉장 수여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문화는 다른 산업에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더해 주는 21세기의 연금술”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화융성은 창조경제의 토대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문화가 과학이나 IT, 그리고 전통산업들과 결합함으로써 창의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 영국도 비틀스나 헤리포터와 같은 문화의 힘이 영국 경제에 새로운 힘을 불어 넣었다”며 “이제 한류는 한글·한식·한옥·공예 등 우리 문화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문화산업을 발전시켜 우리 경제의 새로운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우리 문화가 세계인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인류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다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위원들에게 “앞으로 위원 모두가 우리 문화의 미래를 설계하는 미래의 창조자라는 긍지와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정부와 문화계, 시민사회 가운데서 문화정책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 문화융성의 새 시대를

열어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인 김동호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한편, 김동호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춘추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문화융성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문화한국을 지향하는 기본계획 수립”이라며 “앞으로 100

년을 내다보면서 통일한국, 문화강국으로서의 문화융성 시대를 이끌 기본구상, 문화융성의 기본계획을 세우려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문화융성위의 중점 활동방향에 대해 “소통과 융합에 중점을 두려 한다”며 “문화 전반에 걸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고 폭넓게 수렴해 문제들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만들어 정책에 반영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화산업 발전에 대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고양하면 그것

을 통해 새 문화산업이 창출되고, 새 문화산업이 첨단과학기술과 접목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며 “그것이 문화강국을 국내외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해 “매월 한 차례씩 위원회를 개최할 생각이고 비상임으로 꽤 있는 전통인문, 문화예술, 전통문화, 문화산업, 문화가치 확산 등 5개 전문위도 거의 상설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문화융성위 공식 출범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동호 위원장 등 위원들과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기자 노트

봉고트릭 증산이 시급한 이유

중고차 시장에서 1t 트럭은 수 년 동안 부동의 판매 1위를 기록하며 ‘서민의 발’로 불리고 있다. 소자본 창업에 눈을 돌린 은퇴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차량이고, 적은 양의 화물 이동에도 적합해 이동식 상점 또는 배달업에도 활용도가 높다. 실업자들이 가장 구입하고 싶은 차량도 1t 트럭이다.

고 있다.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이다’. 당장 기자차 영업사원을 붙잡고 물어봐도 답이 나오는 얘기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사간 감정이 섞인 폭력 사건까지 발생했다.



임동률 경제부 기자

봉고트릭 생산량이 제 자리에 머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짊어지고 있다. 서민경제와 밀접한 1t 트럭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고객들은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경우마저 생겼다.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증산 차질에 따라 해외시장에서도 달러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는 게 기자차의 설명이다.

“서민의 발”이라는 애칭처럼 1t 트럭은 소비재가 아닌 공공재의 성격까지 띠고 있다. 그렇다면 3공장의 대의원들이 당사 협상 테이블에 앉아 증산에 부응해야 한다.

증산차질이 빚어진 3년여 동안 방관중인 노조집행부도 나서야 한다. 광주공장 노조 집행부는 2년여간 표류하던 2공장 62만대 증산협의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수 개월만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역 경제를 위한 최선의 합의였다. 찬사가 쏟아진 것을 노조는 기억할 것이다.

원인은 봉고트릭을 생산하는 기자차 광주3공장에 있다. 기자차는 지난 2011년부터 급증하는 봉고트릭의 판매량을 맞추기 위해 증산계획을 세웠다. 시간당 23.1대 생산에서 25.1대로 시간당 2대를 더 만들자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증산계획은 3년째 답보상태다. 증산협의를 담당하는 3공장 대의원의 반대 때문. 대의원은 “정말 차가 팔려서 생산을 증대시켜야 하는 지 확인해보자”라는 말을 3년째 되풀이하

고 있다. 하지만 3공장 사태를 계속 방관한다면 다시 한번 ‘대기업 노조 황포’라는 비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3공장 대의원과 노조의 대승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exian@kwangju.co.kr

“나주혁신도시, 에너지·IT산업 연계해야 성공”

개성공단 6차 실무회담 결렬

전발전 오병기 실장 등 특화산업 조성 주장

공공기관 이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성장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경제사회 연구실장과 박용희 책임연구위원은 25일 발간한 ‘리전인포-혁신도시의 연구개발(R&D) 및 첨단산업 중심지역 육성 방안’에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과 지방 연구개발 종합계획에 맞춰 혁신도시를 첨단특화산업

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위원 등은 혁신도시는 과거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관심 부족으로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 지역으로만 여겨 왔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위원은 최근 정부의 지방과학 기술진흥계획이나 2단계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IT, 농업생명, 문화에 융합된 등과 융·복합할 수 있는 첨단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특히 이주 공공기관의 4개 기능별 산업군(群)에 맞춰 첨단산업 지정과 조성, 이전기관 특성을 감안한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제시했다.

오 위원 등은 아울러 혁신도시를 전남 지역경제 전체로 파악되는 첨단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광주 근교권은 물론 동부권, 중남부권, 서남권 등 4대 권역별 특성과 연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인재도 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책임 소재·재발 방지 이견

北 “파탄이면 다시 군 주둔”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 6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사실상 결렬됐다.

남북 양측은 25일 오후 5시10분부터 20분까지 종결 전체회의를 하고 6차 회담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양측은 이날도 합의문을 채택에 실패했으며 추가회담 날짜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 개발총국 부총국장은 종결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자칭,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북남 당국 실무회담이 오늘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끝내 결렬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남측과의 개성공업지구협력사업이 파탄 나게 된다면 공업지구 군사분계선지역을 우리 군대가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며 서해 육로도 영영 막히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회담에서 “가동 중단 책임이 북한 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재발 방지에 대한 북한 측의 확고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연남뉴스

‘헌정 유린 국정원 해체 전남시국회의’ 결성

32개 시민·사회·종교단체

전남지역 32개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모여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을 규탄하기 위한 ‘헌정 유린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수호 전남시국회의’를 결성했다.

전남시국회의는 2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난 국가정보원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려는 세력을 저지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전남도민이 참여하는 시국회의를 결성·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진상규명 촉구, 책임자 처벌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을 적극 벌여나감과 동시에 전남지역 22개 시군에 시국회의를 확대 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시국회의에 참여한 시민사회계단체는 전남교육희망연대를 비롯한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남진보연대, 민주노총전남본부, 전국공무원노조전남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 가톨릭농민회광주전남교구, 광주전남 불교환경연대 등이다.

/최권익기자kzi@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부실채권(NPL) 매각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대지권 1345㎡ 건물 2974㎡
감정가격 78억4천만원
채권매각 25억원

회순도곡 무인텔
대지 3198㎡ 건물 1107㎡
감정가격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4억

부실채권매각은 매수희망자 현장실사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한우전문점 점장 모집
남평을 “솔향기맑은터” 한우전문점에서 근무하실
용모단정하신 점장을 모집합니다.

호텔경력자 또는 관리경력자 45세미만 남.녀
연봉 3,000만원이상, 4대보험, 퇴직금, 월4회 휴무
이력서(사진), 자기소개서 지참 면접
문의 010-7570-7525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7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암지구
영광 →
어등산골짜기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
Goodboodongsan

부동산 전문지 굿부동산저널 창간!
시시종횡월간 굿뉴스피플이 발행하는 굿부동산저널은
전국 부동산중개업소와 일반 시민들에게 매호 10,000부씩
무기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의 모든 것!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에서 만나보십시오.

지사모집

굿부동산저널과 함께 성장해나갈 부동산공인중개사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본부장, 지사장, 기자
- 지역 : 전국을 비롯 광주 전남 각 시·군·구
- 자격 : - 부동산중개업 경력 3년 이상
- 언론에 관심이 많은 분
- 인원 : 00명
- 제출서류 : 이력서, 등본, 사진
- 기간 : 2013. 7. 16 ~ 8. 20까지
- 특전 : 각 지사 지면 2page 배정

문의 : (062) 673-5255 / FAX : 674-5255 / E-mail : cws2344@hanmail.net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40 www.goodboodongsan.com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월계동 상가건물 매 28억(보2.8억/월1,600만)
- ▷첨단 중심상권 상가건물 18억, 21억, 30억 외 다수
- ▷월산동 대로변 6층건물 매14.5억(보2.8억/월810만)
- ▷두암동 5층건물 매 8.5억
- ▷동천동 공장·창고 임대(대1300㎡, 건400㎡) 보2천 월3백만

대지/전답

- ▷나주시 평산동 446-7 일대 배과수원 13,727㎡(4,150평) 매매가 협의
- ▷완도군 약산면 토지 3,160평(신축주택모함, 펜션등 다용도로 이용가)
-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토지 1,050평 1.8억(펜션 요양시설 적합)
- ▷장성군 삼계면 대지 외 4130㎡(1,250평) 1.7억
- ▷장흥군 장평면 전원주택(660㎡, 전13,165㎡ 포함) 3.5억
- ▷신항동 창고용지(생산특지) 1980㎡(600평) 매매가 협의
- ▷수원지구 원룸부지 323㎡(98평)

기타

- ▷첨단 메인대로변 구분점포 150㎡ 매매8.5억
- ▷첨단 중심대로변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보 10억 월 1,200만
- ▷전남 나주시 문평면 국도1호선 주유소 7억
- ▷전남 소재 골짜기 1,000억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